



# 야구 재미에 푹~

## KIA 키스톤 안치홍·김선빈 물만난 실력 과시 “수비 좋아지니 타격도 야구도 더욱 재미있어”

야구하는 재미에 푹 빠진 키스톤 콤비 덕에 KIA 내야에 활력이 돌고 있다. KIA는 2루수 안치홍과 유격수 김선빈으로 구성된 최연소 키스톤 콤비를 보유하고 있다. 날다른 실력과 승부욕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팀의 주축선수로 자리 잡은 이들은 KIA의 미래이자 공·수의 중심. 하지만 지난해에는 일단 수비실수와 슬럼프에 흥역을 치르면서 성장통을 앓기도 했다.

지난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2013시즌을 위해 이를 악물었던 두 선수, 요즘 표정이 밝다. 야구가 재미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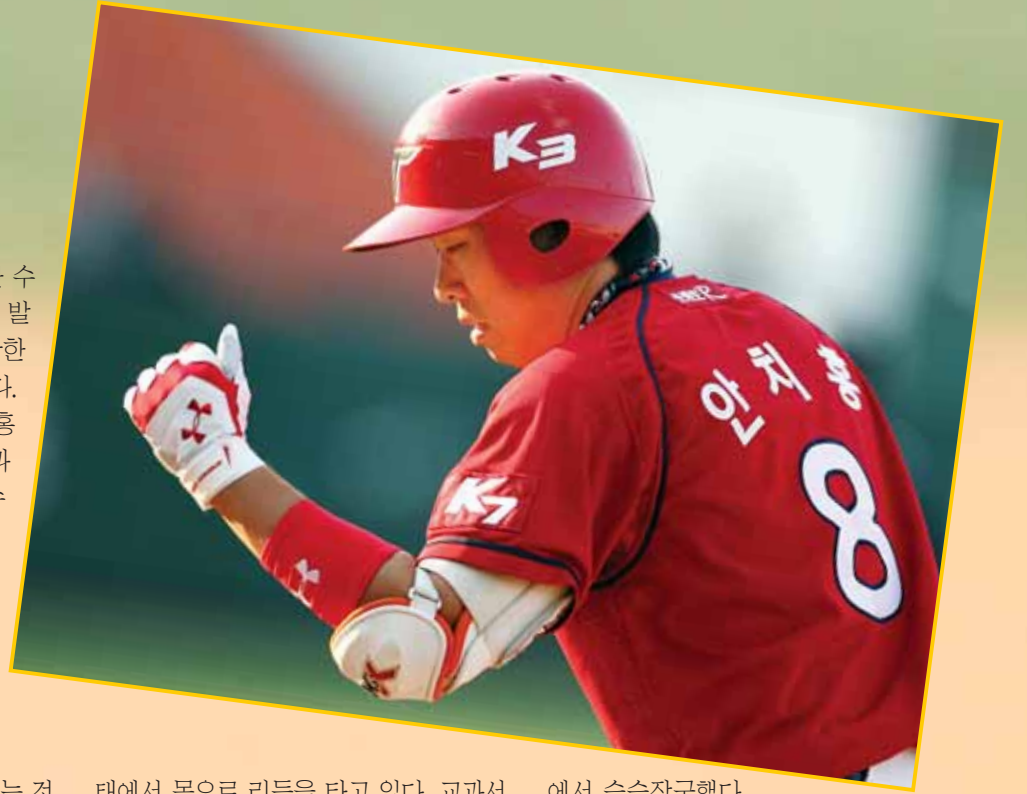
◇물 만난 김선빈의 수비  
프로야구 최단신인 김선빈은 타고난 야구센스로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며 주전 유격수로 성장했다. 야구센스에 노력이 만나면서 수비에 물이 올랐다. 심상치 않은 김선빈의 수비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조짐을 보였다. 김선빈은 오기나와 캠프에서 호수비 열전을 펼쳐서 선동열 감독에게 특별상으로 방망이 부상을 받기도 했다. 선배들이 “김선빈 수비 최고다”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 정도로 일취월장한 수비실력은 시범경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가벼운 볼볼림과 과감한 움직임으로 내야를 중형무전하고 있다. 계속된 동반 수비훈련 속에 안치홍과의 호흡도 적절하다. 1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김선빈은 5회초 정수빈의 타석때 안치홍과 그림같은 더블플레이를 합작하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칭찬은 김선빈을 춤추게 하고 있다. 김선빈은 “수비하러 나가는 게 재미있다. 호수비를 하고 들어갈 때 기분이 좋다.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좋은 수비가 나오는 것 같다. 마음이 달라지니 수비도 더 편해지는 것 같다”고 웃었다.

◇새로운 원동력 안치홍의 도전  
지난 시즌 불안했던 수비에 자존심을 구졌던 안치홍은 훈련과 훈련을 통해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다시 또 실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고민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다.

안치홍은 달라진 폼으로 타석에 서고 있다. 손목을 머리 위쪽까지 들어올린 상



KIA 미래이자 공·수의 중심  
지난해 잇단 실책·슬럼프에 흥역  
하지만 올해는 야구가 즐겁다

태에서 폼으로 리듬을 타고 있다. 교과서적인 좋은 폼은 아니지만 안치홍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다. 안치홍은 “원래 웅크리면서 치는 스타일이다보니 오른팔이 잘 뻗어 나오지 않았다. 팔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편인데 높게 들고 있다보면 타격할 때 오른팔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작은 변화같지만 안치홍에게는 도전이자 올 시즌을 기다리게 하는 큰 변화다. 일단 때부터 차세대 스타로 주목 받은 안치홍은 ‘운’까지 더해지면서 프로무대

에서 승승장구했다. 다른 시도가 필요 없었던 안치홍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의 실수와 골든글러브, 대표팀 발탁 실패 등이 안치홍의 변화를 이끌었다.

안치홍은 “그 동안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다. 야구에 대한 간절함과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도전의식도 생기고 그만큼 야구가 재미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머리 짧게 자른 박지훈 “난 조인성 스타일”

### KIA 덕아웃 말말말

▲골라쓰는 재미가 있겠어=두산의 훈련을 지켜보던 KIA 선동열 감독, 두산에 힘있고 발 빠른 좋은 야수들이 많다면서.

▲어제 같이하면 재미있죠=지난해 수비실수로 마음고생을 했던 안치홍, 17일 요즘 야구하는 게 재미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안치홍은 전날 경기에서 0-2로 뒤진 7회 말 두산 홍상삼을 상대로 좌측 담장 넘어가는 역전 스리런을 때리며 3-2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그럼 내가 180cm다=이순철 수석코치, 유격수 김선빈이 자신의 키가 168cm라고 말하자. 프로야구 최단신 선수인 김선빈의 공식 키는 165cm, 이순철 수석코치는 173cm다.

▲저랑 닮았잖아요=볼보이로 경기장을

찾은 진흥중 선수에게 감감을 선물한 김선빈, 4명의 선수중 한 명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선물을 받은 선수는 가장 키가 작았다.

▲구경나왔어요=훈련이 끝난 뒤 나란히 덕아웃에 서있던 대졸 신인 야수 고영우와 박찬, 두산 타자들의 타격을 보기 위해 남아 있다며, 두 무기는 김동주·김현수 등 두산 타자들의 타격을 보고 “우와 어떻게 저렇게 멀리 가지”라는 감탄사를 쏟아냈다.

▲조인성 스타일?=머리를 짧게 자른 투수 박지훈,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에 최근 화제의 드라마 주인공인 배우 조인성 같이 잘라봤다면서.

▲LG 조인성?=조인성 스타일이라는 박지훈의 얘기를 들은 포수 이상우, LG 조인성 선배를 말하는 거냐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고교야구 주말리그 개막...효천고·군산상고 2승

아마야구의 패기 넘치는 승부가 시작됐다. 지난 16·17일 2013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전국 구장에서 일제히 막이 올랐다. 올해로 3번째 시즌을 맞는 주말리그는 8개 권역(서울권 A·B, 경상권 A·B, 전라권, 중부권, 경기권, 인천·강원권)으로 세분화돼 전반기 동일권 리그 및 왕중왕전, 후반기 광역권 리그(인터리그) 및 왕중왕전으로 진행된다.

정읍의 인상고와 시흥 소재의 소래고가 새로 합류하면서 참가팀은 53개팀에서 55개팀으로 늘어났다. 올 시즌에는 연고지 선수

를 우선 지명하는 프로야구 1차 지명제도가 부활하면서 고교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

전라권에서는 동성고·광주일고·진흥고·순천효천고·화순고·인상고·전주고·군산상고가 우승을 놓고 각축을 벌인다.

지난 16·17일 군산야구장에서 진행된 전라권리그에서는 효천고와 군산상고가 각각 2승을 수확했고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와 ‘신생팀’ 인상고도 주말리그 첫 승리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이 18일(한국시간)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호투하며 시범경기 첫 승을 기록했다.

## 류현진 첫 승

### MLB 시범경기... 밀워키전 5.20닝 6K 1실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26)이 시범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두면서 팀내 ‘선발경쟁’의 전망을 밝혔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멀백 랜치 스타디움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시범경기 5.20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으며 안타를 3개만 내주며 1실점으로 호투해 승리투수가 됐다.

이날 류현진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어지던 우려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그의 미가 크다. 지난 세 차례 시범경기 선발등판에서 류현진은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남겼다.

탁월한 체인지업을 앞세워 빅리거 타자들을 통쾌한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 제구력이 흔들려 실점하곤 했다. 특히 4회에 연달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선발로 뛰기에는 체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설부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주변의 시선에도 성공을 확신하며 ‘마이 웨이’를 걸던 류현진은 이날 승리로 자신이 옳았음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

이날 류현진은 오히려 4회부터 제구와 구위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 3회에 위기를 맞은 류현진은 4회에는 공 11개로 세 타자를 잡아냈고 5~6회에도 다섯 명의 타자를 연속 무안타로 요리해 ‘4회의 악몽’이라던 세간의 평가를 비웃었다.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은 변하지 않았고,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낸 이후의 위기관리 능력도 돋보였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도 “위기관리 능력이 점차 좋아지는 것이 올봄 류현진의 성공의 열쇠”라며 중용할 뜻을 내비쳤다.

팀내 사정도 류현진이 시즌 초부터 선발로 안착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저스는 선발 자원이 풍부해 류현진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최근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1억4700만 달러(약 1627억원)라는 거액을 받고 다저스에 입단한 우완 잭 트래인가 팔꿈치 통증을 겪고 있어 합류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또 한명의 선발 후보인 채드 빌링슬러도 버트 연습을 하다가 집게손가락 통증을 호소해 다음 등판 예정일에 출전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시 베크 역시 감기 증상을 보이는 등 풍부하던 선발진에 최근 들어 이적자투구멍이 뚫리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류현진이 호투하면서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연합뉴스

<p><b>기차표/항공권/승선권</b>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p> <p><b>(주)대원여행사</b> 062)526-7000</p> <p>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p> <p>광주역 525-4835   송정역 941-3278</p>	<p><b>영주 부석사</b> <b>선비촌 기차여행</b></p> <p><b>출발일</b>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p> <p><b>여행비</b> 68,000원</p> <p><b>여행코스</b>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p> <p><b>포함사항</b>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p> <p><b>불포함</b> 식사비</p> <p><b>특전</b>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p>	<p><b>진해군항제</b> <b>벚꽃축제 기차여행</b></p> <p><b>출발일</b>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p> <p><b>여행비</b> 37,000원</p> <p><b>여행코스</b>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항산공원</p> <p><b>포함사항</b>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p> <p><b>불포함</b> 식사비</p>
--	--	--